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0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3일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금호타이어 함평 이전 '화재 보험 약관'에 발목 잡히나

화재 보상 한도 5000억원…'원재료 발화시 면책' 보상액 축소 우려
'재조달 특약' 같은 장소 복구해야 높은 보상…경제계 "폭넓게 해석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초대형 화재가 보험 손해사정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상액 규모 등을 놓고 복잡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기사 6·9면〉

금호타이어가 화재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험 업계에선 보험 약관에 '원재료 발화 시 면책'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보상액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 발생 시 같은 장소에 건물을 복구해야만 보상액이 높아지는 '재조달 특약'에도 가입된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을 활용한 함평 신규 공장 이전 사업도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금호타이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총 6개사에 1조 2947억원 규모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화재 시 최대 보상한도는 5000억원으로 예상되며, 약관 해석과 발화 원인 규명 등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유사한 유형의 화재 사고 때도 보험 최대 보상한도는 3000억원이었으나, 최종 지급액은 1200억원대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측의 자체 발표에 따르면 광주공장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타이어 원재료인 생고무에 딸려 나온 나뭇가지 등 이물질로 추정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추가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항'에 '물건 자체의 성질로 인해 불이 난 경우'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번 화재 원인이 원재료 발화로 최종 확정될 경우엔 해당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소방과 경찰의 최종 화재 원인 감식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다만 금호타이어가 가입한 보험이 화재보험이 아닌 재산종합보험이라는 점에서, 약관 해석에 따라 보상 규모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행히도 6개 보험사 중 일부는 내부적으로 '원재료인 생고무를 가공하는 단계에 섞여 있던 나뭇가지에서 발화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자연발화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역대급 피해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장 화재 피해 외에도 2000명이 넘는 근로자 임금, 1만명에 육박하는 인근 시민 피해 등을 고려하면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 특약 제한 등에 따른 보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화재 피해 복구 자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약관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 규모가 결정되겠지만 발화 원인이 원재료로 판단된다면 보상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에게 금호타이어는 중요한 고객사이긴 하지만, 계약 약관이 기준이 되는 만큼 보상액 산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특약인 '재조달 특약'은 화재가 난 광주공장의 함평 이전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조달 특약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같은 장소에 다시 건립해야만 현재 재조달하는 금액으로 높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장을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다면 노후한 공장의 값어치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함평 이전 계획을 세우고 상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 등을 하고 있는데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재조달 특약'에 따라야 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기업 보험팀과 금호타이어가 결정할 문제지만,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일단 피해 규모 파악에 주력하고,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보험사와의 보상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계에선 역대 유례없는 대형 화재라는 점을 들어 함평 공장 이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의 폭넓은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화재 보험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보험 보상액은 보험사의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내년 5월 복원, 옛 전남도청 무엇이 담기나 ▶7면
김도영 햄스트링 손상…'KIA 부상 악몽'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경기도 양평 별빛 여행 ▶22면

사전투표소 설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특별취재단=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오늘부터 사전투표…내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

대선 D-5

투표소 광주 96·전남 298곳 설치
신분증 지참 전국 어디서나 투표

29~30일 이틀에 걸쳐 광주·전남 394곳을 비롯한 전국 3568곳 사전투표소에서 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관련기사 2·3·4면〉

28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조기대선 사전투표소는 광주와 전남에 각각 96곳, 전남 298곳이 운영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해야 하고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전투표를 한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를 진행한 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돼 6월 3일 선거일 중복투표는 불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과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에 정복경찰관을 처음으로 배치한다.

선거인이 집중되는 광주·전남 각 8개, 11개 사전투표소의 경우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전담 경찰관도 상주한다.

현행법상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되며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 신혼부부 5년 새 20% 이상 줄었다

광주·전남지역의 신혼부부 수가 5년 새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신혼부부의 삶'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신혼부부 수는 2023년 기준 2만5954쌍으로 5년 전인 2019년 대비 23.4% 감소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비중도 2023년 기준 62.5%로 3.9%p 하락했고, 평균 자녀 수 역시 0.94명에서 0.86명으로 0.08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신혼부부 수도 3만8275쌍에서 3만445쌍으로 20.5% 감소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2023년 기준 64.5%로 5년전보다 4.7%p 줄었고, 평균 자녀 수는 0.1명 줄어든 0.97명으로 줄었다.

광주·전남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소득은 2023년 기준 광주 6239만원, 전남 5696만원으로 5년 전보다 모두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